

15 세 기 된 소 리 체 계 의 기 능 부 담 량

-훈민정음 각자병서와 형태적 자질과의 관계에서-

김 석 득

1. 훈민정음(헤레)의 각자병서와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그 실제 훈민정음 기본 17초성에는 각자병서가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병서의 요령과 한자음의 그 보기만 들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제자해"에서는 전탁음(각자병서) ㄱ, ㅋ, ㆁ, ㆁ, ㆁ, ㆁ이 나타난다. 이리학역 훈민정음에 제시된 "아·설·손·치·후"의 체계는 삼지적인 세모꼴의 상관물(faisceaux triangulaires)^{1>} 또는 3계열 상관물 및 이지적 상관물(2계열 상관물)을 암시하고 있다.

예사 / 후두긴장(뒹)/ 셈(기식):

ㄱ / ㅋ / ㆁ ㄷ / ㅌ / ㆁ

ㅂ / ㅃ / ㅍ ㅈ / ㅉ / ㅊ

예사 / 후두긴장(뒹):

ㅅ / ㅆ ㅇ / ㆁ

위에서 보는 바, ㅅ계와 ㅇ계는 이지적(2계열)상관물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관물에는 각자병서 글자가 공능적으로 들어 있다. 각자병서는 전칭이 엉기어 일어나는 전탁음이므로 그것은 된소리 자질을 가짐이 틀림없다.^{2>} 그러면 과연 전탁음은 15세기의 현실 언어의 음소 체계였을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7초성의 기본글자에서는 이 각자병서가 들

어가지 않았음에도 "제자해"에서는 전락음으로써 된소리(엷기는 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합자해"에 보면, 잘 아는 바 각자 병서의 실제적인 언어표현의 보기로는 ㅈ, ㅉ만이 각각 존동음어(최소의 짝을 이루는 말, quasi homonym, minimal paire)로 나온다.

·혀爲舌而·혀爲引

소·다爲覆物而소·다爲射之類

한편, 본문 17조성 체계에도, 또한 "제자해"에도 없는 각자병서 글자 ㅉ이 존동음어의 보기로 나타난다.

고·여爲我愛人而과·여爲人愛我

여기에서, 훈민정음 자체에 이미 각자병서의 전락음 체계에 대한 식연치 않은 몇가지 의문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1) 17조성 체계에 넣지 않으면서 "제자해"에서 전락음의 각자병서 체계를 세움은 무슨 까닭인가?

(2) 또한 각자병서 체계를 세웠으면서 "합자해"에서는 고유어의 보기로 ㅈ, ㅉ만을 들어 놓았음은 무슨 까닭인가?

(3) 기본 글자 체계나 전락음 체계에 전혀 없는 ㅉ을 "합자해"에서 중요한 말본스런 변별적 자질(입음, 피동)로 그 보기를 들어 놓았음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위에서, (1)은 아마도 기본 글자 체계와 그 운용글자를 구별하려는 데서 온 듯하다. 곧 각자병서는 합음병서와^{3>} 함께 응용 글자로 처리한 듯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각자병서의 언급도 "제자해"에서 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점은 그대로 의문점으로 남는다.

(2)는, 각자병서는 글자의 체계상의 문제일 뿐 다만 실제로 현실음으로 고유어에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쓰인 것은 ㅈ, ㅉ뿐이었음을 암시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15세기 문헌에 따르면, 그밖의 각자병서도 고유어에 쓰이고 있지 아니한가? 이 점도 훈민정음 해례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아마도 ㅎ, ㅍ은 존동음어의 보기를 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언어의식의 농도가 짙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뒤에서 밝혀 질 것이다.)

(3)은, ㅍ이 비록 말본적 자질을 표면상 보이고는 있지만 다만 "합자해"에서만 나타남은 무엇인가 불투명한 존재인 듯하며, 따라서 ㅍ이 실제음에 존재하느냐의 의심을 더욱 자아내게 한다.

이상에서 들어난 각자병서는 이미 아는 바 사실상 15세기 문헌에서 다 나타난다. 그밖에 훈민정음 언해와 15세기 문헌에는 ㅍ도 나타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하다.

(1) 각자병서는 17 기본 초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2) 각자병서가 "제자해"와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ㄱ, ㄷ, ㅂ, ㅈ, ㅊ, ㅎ"이다.

(3) 각자병서가 "제자해"와 "합자해"와 15세기 문헌에 모두 나타나는 것은 "ㅅ, ㅎ"뿐이다.

(4) "합자해"와 15세기 문헌에만 나타나는 것은 "ㅇ"뿐이다.

(5) 문헌에만 오직 나타나는 것은 "ㅁ"이다.

이것으로 보아 15세기 각자병서가 가지는 된소리 음운체계는 일반적으로 17기본초성보다는 소극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된소리 체계는 각각 의식의 농도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 기능 부담량이 각기 다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15세기 당시의 각자병서와 형제적 자질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당위성을 요구한다.

15세기 각자병서의 된소리는 여러 층의 기능부담량이^{4>} 예상되는데, 이들 기능부담량의 많고 적음을 가름하는 일반적 요건을 차례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1) 준동음어(최소의 짝말)를 이루는 것.
- (2) 기본 자립형식의 어두에 나타나는 것.
- (3) 기본형으로서의 구속형식에 나타나는 것.
- (4) 형태음소변동으로 생성된 된소리.
- (5) 이음 달소리(gémínation)현상과 병서된 된소리와 의 수의적 현상(facultalif)으로 나타나는 것.
- (6) 이음 달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는 실제 발음에서 된소리로 나는 경향이 있다.).

2. 각자병서와 형태적 자질과의 관계

이제 위에서 문제된 각자병서자(ㄱ, ㅃ, ㅅ, ㅆ, ㅈ, ㅊ, ㅌ, ㅎ)에 대하여 15세기 문헌을 중심으로 그 형태적 자질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자. 이 규명은 곧 기능부담량과 관계된다.

[ㄱ]

ㄱ은 "합자해"이나 "용자례"에 고유어의 보기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15세기 문헌에 준동음어로 나타나지 아니함은 물론, 기본형으로서의 자립형식의 어두나 기본형으로서의 구속형식에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을 ㄹ, ㄱ의 형태음소 배합에서 ㄱ이 수의적으로 된소리(병서)가 되는(ㄹ, ㄱ ~ ㄹ, ㄱ) 이화현상에 따른 변이형태에 나타난다. ㄹ, ㄱ의 형태음소 배합상에 나타나는 ㄱ의 된소리 현상은 다음과 같은 형태 자질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1) ㄹ가진 어미에서 수의적 이화현상으로

(1) ㄹ가~ㄹ까

저허홀가 말미ㅎ야 <두시초 VII 22>

주글가 두리어 <삼강열 21>

그려사 아승불까 <옹 43>

너길까 저흐실씨 <법화 I 246>

(2) ㄹ고~ㄹ꼬

蒼조로 히어環堵를 두게 홀고 <두시초 VII 29>

넉 能히 經을 너비 니를꼬 <법화 IV 124>

才戰을 말꼬 <두시초 X 27>

2) 매김플 ㄹ 또는 ㄹㅎ 과 7첫소리 가진 안옹근 이름씨의 배합에서

나것 → ㄹ껏, ㄹㅎ것~ㄹ껏

(1) 나것— ㄹ껏

고후로 만눈 거슬 <석보 XIII 39>

꺾흔 거시룬디 <능엄 II 17>

문홀 꺾시다 <석보 IV 38>

孝養 ㅎ을 꺾스로 <월석 VIII 63>

위의 음운규칙: ㄱ → ㄱ/ㄹ____, 또는 ㄱ → ㄱ/ㄹ____

매김플 ㄹ밑에 이름씨나 안옹근 이름씨가 오는 경우는 본래 후두 폐쇄 음 ㅎ이 들어감이 원칙이다.

꺾거시 <석보 IX 5>

그러므로 위의 “ㄹ껏”은 매김플 ㄹㅎ밑의 ㄱ이 된소리 ㄱ이 되어, 곧 ㄹㅎ

ㄱ → ㄹ꺾, 다시 말하면,

ㄹㅎㄱ → ㄱ

$$= \begin{bmatrix} \text{단함} \\ \text{여림} \end{bmatrix}_{C_1} + \begin{bmatrix} \text{단함} \\ \text{여림} \end{bmatrix}_{C_2} \rightarrow \begin{bmatrix} \text{단함} \\ \text{팀} \end{bmatrix}_{CC}$$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는 다음 (2)에서 들 수 있다.

(2) ㄹㅎ·ㄱㅈ·ㄴㅇ·ㄷㅌ

뽕 거시 <석보궈 5>

莊嚴 홀 깎 <석보궈 41>

위에서 수의적인 형태음소의 변동현상은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ㄹㅎ·ㄱㅈ·ㄴㅇ·ㄷㅌ⁵⁾

이와 같이 볼 때, 현대어에서 매김폴 ㄹ밑에서 [단함·여림] 첫소리를 가진 이름씨(혹은 안응곤 이름씨)가 되게 나는 까닭은 이러한 역사적 이유에서일 것으로 추측된다.

3) ㄹ 첫소리가진 이름씨의 배합에서

곰기 → 품기:

곰근 밧피 잇느니 (竅穴居外) <능엄 I 59>

窟 穴 은 곰기라 <능엄 IX 28>

窟 온곰기라 <열석서 21>

하 커 스믈 품기 업서 <열석 II 51>

음운규칙: ㄱ → ㄱ/ㄹ_____

또는 ㄱ → ㄱ{#}_____

4) 이음당소리로 나타남

(1) 된소리의 기능부담량 측정에 이음당소리를 끌어오는 이유

이음당소리란 자질이 같은 두 낱덩이(단위)의 당소리 음소의 이음을 말한다. 가령, 프랑스말의 il lit (ll), vous êtes têtu (tt)

의 ll, tt가 그것이다.^{6>} 국어의 경우는 "그르먹거나" <월석 XXI 111>의 가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음닿소리는 결코 한 낱덩이의 음소가 아니다.^{7>} 이음닿소리에서는 동안의 연장으로 그리고 강도(l'intensité)의 증가로 닿소리 조음의 강화 현상(accentuation expressive: la phénomène de renforcement d'une articulation consonantique)이 일어나므로, 한 낱덩이의 긴 닿소리(감정적 강도를 높일 때 길어짐)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음닿소리는 한 낱덩이의 긴 닿소리 음소와는 그 조음 방법이 다르다. 이음닿소리의 조음의 시작은 내파(implosif)가 되어 한 낱네(syllabe)의 끝소리가 되고, 이음닿소리의 끝은 외파(explosif)가 되어 다음 낱네의 시작이 된다. 이것은 음성적 인상으로는 연속적인 두 개의 닿소리의 조음의 인상을 준다.^{8>} 그러나 이음닿소리는 단순한 조음의 지속이 아니다. 그 사이에는 후두 긴장이 점강해 가다가 약해지고, 다시 강하여지는 두 낱네의 연결상에 나타난다. 이것은 따라서 분명한 두 낱덩이 닿소리의 이음인 이음닿소리인 것이다.

국어의 경우 이음닿소리는 맞춤법상 원칙적으로 앞낱네 끝소리와 뒤낱네 첫소리에 분철된다. 그리고 이음닿소리가 아닌 한 낱네의 낱덩이 음소를 이루는 소리(가령 각자병서된 된소리)는 뒤의 낱네 첫소리에 나타나며 그 발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점강의 연속이 된다. 이제까지 말한 이음닿소리와 병서된 단순한 닿소리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이음닿소리 : A + A(혹은 A · A)

단순닿소리 : AA

그런데 A + A(A · A)의 경우는 발음상 AA로 나타나기 쉽다. 이 경우는 낱네의 경계가 달라진다. 가령,

웃닛머리에 다누니라 <훈언>

는 달·ㄴ → 달·ㄴ → 단·ㄴ (A·A) → 다 낭(AA) 가 됨과 같다. 물론 이 경우 ㄴ의 병서자 ㄴ은 형태론상 한낱덩이 음소인 ㄴ의 된소리라기 보다 형태소 경계를 이루는 이음닿소리 ㄴ으로 풀이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때의 실제 발음은 ㄴ과 ㄴ이 중화된(neutralisé)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똑같은 이음닿소리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부령괴 다돈 조봉니 <월석XXI 112>

부려스니 솔보되 <월석XXI 114>

발거시 <석보궐 9>

莊嚴홀끗 <석보궐41>

지부로 도락오 싯제 <옹 18>

싸호 싯제 <법화I 9>

현대어의 경우는 A·A → ^(AA) A·AA 가 발음이 가능하다.

민더라 → 미더라, 민더라

t·t → {tt
t·tt}

이상에서 이음닿소리는 의식농도가 얇은 대로 된소리와 유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된소리의 농도 측정 혹은 기능부담량의 측정에서 이음닿소리를 규명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 15세기 ㄱ과 이음닿소리 ㄱ

15세기 ㄱ의 이음닿소리의 보기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그르떡거나 <월석 XXI 111>

비린피롤 먹고 적컨마른 <월석 XXI 125>

고령쳐 닉게 흥야도 <열석 XXI 하 167>

寧經을 닉고 <열석 XXI 126>

心을 궤야 닉고 저 <열석 XXI 167>

의와 같은 이음닿소리 ㄱㅇ은 한낱내를 이루는 ㄱ으로 변하지 않는다(먹거나 → *머거나). 곧 이음닿소리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ㅈ, ㅉ 이 이음닿소리가 병서로 변동하는 경우와는 다른 점이다. 다음을 보자.

마쭈히 <용 95> ← 맛 ㅈ히

연쭈고 <열석 II 39> ← 연 ㅈ고

니쏘리 <훈언> ← 닛소리

혀쏘리 <훈언> ← 혃소리

이상에서 보면, ㄱ은 다음과 같이 결론할 수 있다.

기존동음어(최소의 짝말)가 없다.

ㄱ 기본형(basic form)으로서의 자립형식과 구속형식의 보기가 없다.

ㄱ이 나타나는 곳은 음운조건에 따른 의무적 수의적인 형태음소 변동에 의한 변이형태에 국한된다. 그 형태적 자질은 어미나 특정한 이름씨, 안옹근 이름씨 등이다.

ㄱ 이음닿소리로 ㄱㅇ이 나타나나, 그 변동으로서의 병서 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에서 (ㄱ) (ㄴ)은 ㄱ의 기능부담량이 적음을 뜻한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ㅈ, ㅉ은 준동음어도 나타나고, 기본형으로서의 자립형식과 구속형식에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에 견주면 ㄱ은 기능부담량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ㄱ)의 경우는 ㄱ이 담당하고 있는 적극적인 기

능 부담에 해당한다. (ㄹ)은 그 소극적인 기능부담에 해당한다. ㄱ의 ㄱ — ㄹ은 앞으로 밝혀질 ㅌ의 경우도 마찬가지어서, ㄱ과 ㅌ의 기능의 부담량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견주면 또한 앞으로 밝혀질 ㅈ은 형태음소 변동의 범위가 더욱 넓다. 따라서 ㄱ은 ㅈ보다 기능부담량이 적은 셈이다. 역시 앞으로 밝혀질 ㅍ은 특수한 변이형태(능히 아디 몬홀 뻬라<법화 I 205>와 이음달소리에만 나타날 뿐으로 거의 그 기능이 없다 싶어 하다. 이러한 ㅍ에 견주면 그래도 ㄱ은 기능부담이 큰 셈이다.

이제 병서로 기표되는 ㄱ의 된소리 기능부담량을 식별하기 위하여,

형태적 자질		병서(된소리)					
		ㄱ	ㄲ	ㅃ	ㅆ	ㅈ	ㅊ
기본형	준동음어	-	-	-	(+)	+	+
	자립형식	-	-	-	-	+	+
	구속형식	-	-	-	-	+	+
형태음소	어미	+	+	-	+	+	
	이름씨	+	+	-	+	+	
변동과 변이형태	안응근 이름씨	+	+	+	+	+	
	움직씨 어간	-	-		+	+	
이음달소리	변동있음				+	+	
	변동없음	+	+	+			

* (+)=어중에서 안응근 이름씨의 준동음어가 되는 것.

이를 형태적 자질과의 관계로 나타내 보기로 하되, 그것은 다른 병서들의 그것과의 견중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므로, 이들을 함께 밝혀 보기로 한다. 물론 ㄱ밖의 다른 것은 앞으로 계속될 글에서 밝혀질 것이다. (ㄴ은 표면적으로 병서이나 형태적 음절적 경계로 볼 때 된소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빼다. ㅇ은 기호적인 병서이나 실제음가는 없다고 보아 또한 여기서 빼다.)

3. 상관물과 된소리 기능부담량

변별적 자질을 라일스(Bruce L.Liles)의 방식에⁹⁾ 따르면, ㄱ은 | -anterior·+tension, +obstruent·-coronal | 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ㄱ과 똑같은 아음 계열 ㄱ, ㅋ과의 대비에서 보면 ㄱ, ㄱ, ㅋ의 변별적 자질은 | -tension·-aspirate | / | +tension·-aspirate | / | +aspirate·-tension | 이 되며, 이를 우리말로 나타내면,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예사 / 셈 / 됄
→ ㄱ / ㅋ / ㆁ

위는 동시에, 예사 / 셈 / 됄의 k/ kk/ ㆁ를 이루는 삼계열 상관물을 이룬다. 그런데 이중 kk(ㆁ)이 가장 그 기능부담량이 적다.(ㄱ, ㅋ 등은 기본형의 자립형식의 어두에 많이 나온다: ㄱ아니 어리시니<839>, ㆁ 석자히러니 <석보.Ⅵ 44>)

4. 마무리

15세기 병서자 ㄱ은 된소리 음소이나, 이는 ㅉ, ㅆ, ㅄ보다는 그 기능부담량이 적다.(훈민정음"합자해"에서 ㅆ, ㅄ의 존동음어의 보기가 나

음은 바로 그 기능부담량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런가 하면, 끼은 뽀보다는 그것이 크다. 또한 따과는 그것이 비슷하다. 한편, 15세기 당시 ㄱㄷ끼은 삼계열 상관물을 이루나, 그중 된소리 변별자질의 기능부담량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겠다.

(붙임) 이 글은 15세기 각자병서 전반에 관한 연구이나, 사정에 따라 여기에서는 "ㄱ"만을 다루고 다른 것은 이에 대비함에 그쳤다. 나머지의 각자병서에 대하여는 이다음 다른 곳에서 이어 다루어질 것이다.

주

- 1) "상관물"에 대하여는 Jean-Louis Duchet: *La Phonologie* puf. 1981, 22.95-9, 참조.
- 2) 더욱, 이에 대하여, 허웅: 국어음운학, p.334 참조.
- 3) 합용병서자(자음군)는 된소리가 아니고, 닿소리 글자 하나 하나가 제소리값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없어진 글자의 상고' <나라사랑 14집> 1974, 참조.
- 4) 여기 "기능 부담량"이란, 많이 쓰이는 통계적 본포에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각자병서가 어떠한 종류의 형태적 자질과 관련되며, 그 관련의 범위는 어떠한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 5) 이처럼 후두 떼쇄가 제2형태소의 된소리되기로 나타나는 수의적 현상은 "ㄹ~ㄷ~ㄱ"에서도 볼 수 있다(허웅: 국어음운학, 335쪽 참조).
후 저괴 <얼석XXI 159>
~후 찌 괴 <석보IX 18>
이 실 저 괴 <석보IX 16>
~후 실 찌 괴 <석보IX 3>
- 6) Larousse: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1973, Gēmination쪽

- 7) 그런데, 어떤 언어에서는 이러한 이음 닿소리(*la gēminée*)는 한 변별적 가치를 갖는다. 그것은 단순 음소와는 다른 한 음소이다. 가령, 이탈리아 말의 *dona* '선사하다' *donna* '부인'에서 /nn/은 한 낱덩이 음소다. (Georges Mounin: *Dictionnaire de la Linguistique*, *gēminée* 쪽)
- 8) Georges Mounin: *Dictionnaire de la Linguistique*, puf, *gēmination*, *gēminée* 쪽.
- 9) Bruce L. Liles: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p.217.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